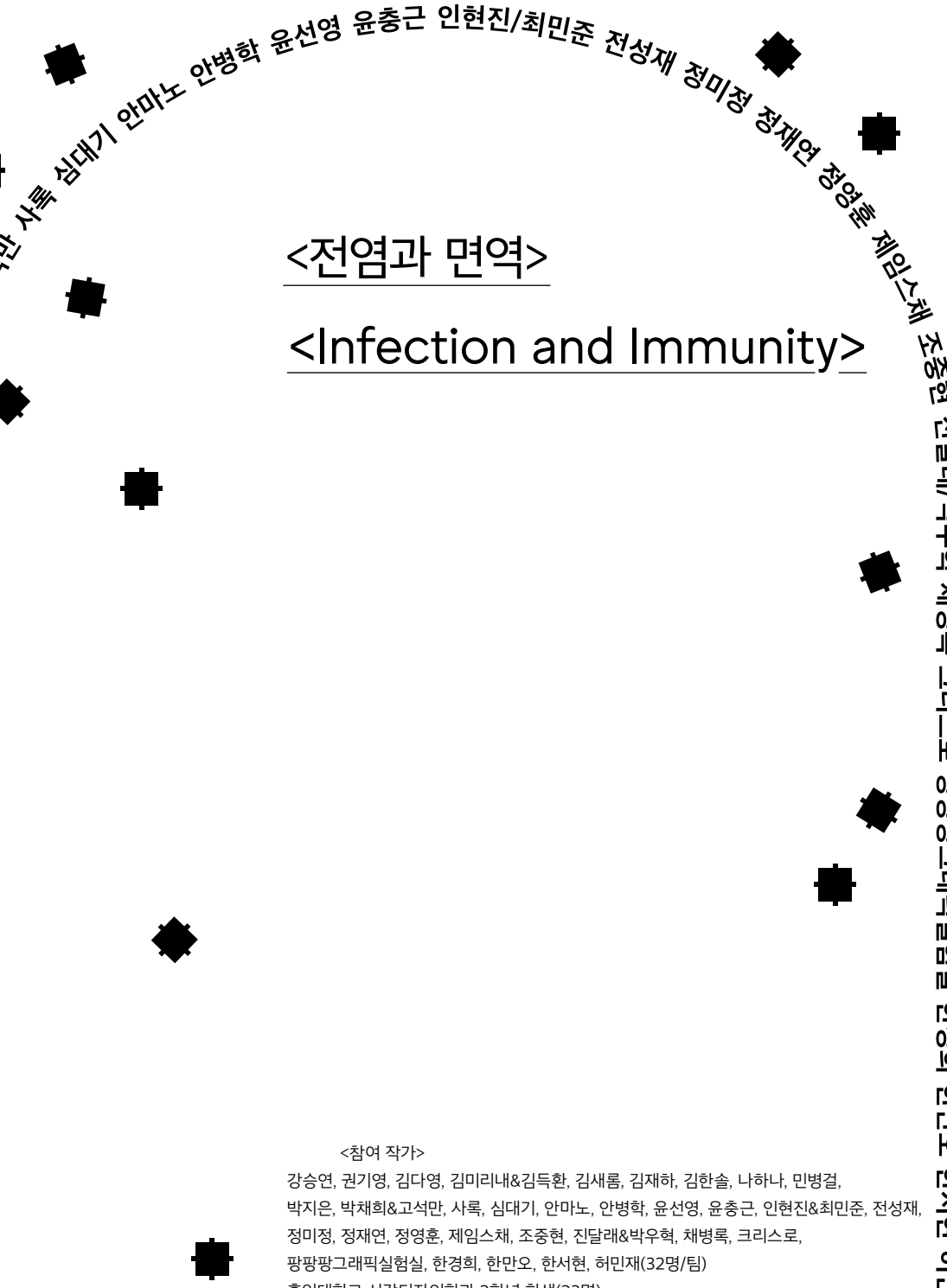


강승연 권기영 김다영 김미리내/김득환 김새롬 김재하 김한솔 나하나 민병걸 박지은 박채희/고석만 사록 심대기 안마노 안병학 윤선영 윤총근 인현진/최민준 전성재 정미정 정재연 정영훈 제임스채 조중현 진달래/박우혁 채병록 크리스로 팡팡팡그래픽실험실 한경희 한만오 한서현 허민재(32명/팀)
PP 260-271



<전염과 면역>

<Infection and Immunity>

<참여 작가>

강승연, 권기영, 김다영, 김미리내&김득환, 김새롬, 김재하, 김한솔, 나하나, 민병걸, 박지은, 박채희&고석만, 사록, 심대기, 안마노, 안병학, 윤선영, 윤총근, 인현진&최민준, 전성재, 정미정, 정재연, 정영훈, 제임스채, 조중현, 진달래&박우혁, 채병록, 크리스로, 팡팡팡그래픽실험실, 한경희, 한만오, 한서현, 허민재(32명/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학년 학생(23명)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학년 학생(23명)

1. <전염과 면역> 전시 들어가기

2020년. 코로나 19는 정치, 사회, 경제를 휘저으며 문화 예술계의 많은 것까지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대다수의 사전 기획된 전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재개한 전시는 시간 당 수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전 예약을 받았고, 전시와 밀접한 디자인 산업은 난데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대학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방침을 새롭게 마련했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강사, 학생은 급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을 맞이했다. 산업과 교육 현장 모두에서 절망과 우울이 느껴졌다. 타인을 경계하며 많은 욕망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격리하는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접한 뉴스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이념과 정치의 수단으로 삼아 상대를 비난하는 모습을 목격되기도 했다. 전시 <전염과 면역>은 재난을 함께 겪는 디자이너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그래픽 디자이너, 교육자, 학생 55명(팀)을 섭외했고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구분했다.

<전달된 기획 의도>

코로나 19는 정치, 사회 경제를 휘저으며 문화 예술계의 많은 것까지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고, 숙주(인간)를 침범하고 전염을 통해 자기를 복제하는 기생적 존재입니다. 숙주는 자신의 보호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면역성을 획득해 더 이상 면역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과 이분법적으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전염과 면역이라는 이 바이러스와 숙주의 근원적 존재 방식은 우리 삶에 빠르게 투영되어 우리의 사회적 존재 양식 또한 재정의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Section 1. 전염과 면역(Infection and Immunity)>

전염과 면역 섹션에서는 20대에서 50대까지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32명(팀)의 디자이너, 교수, 디자인 연구자가 코로나 19를 함께 경험하며 느낀 디자인을 바라보는 생각, 작업을 대하는 태도, 일상의 변화, 목격한 사회 현상을 A1 사이즈 포스터에 자유롭게 표현한다.



<Section 2. 보호의 도구(Tools of Protection)>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23명의 학생이 전염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그려보고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수업 중 일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결과물은 오브제, 키트, 소책자 등 다양한 매체로 완성되었다. 아래는 <보호의 도구>를 설명하는 세 가지 서술이다.

- 2020년. 전염병으로 개강이 미뤄지고 반 년 넘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지속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며 그 속에 함께 얼어있던 고대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가까운, 또는 먼 미래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무엇을 숙주 삼아 퍼지게 될까요?

2. <전염과 면역> 전시 구경하기

코로나 19를 겪어내는 일상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쓰레기를 보며 전시를 위한 홍보물은 온라인 매체에 적합한 모션포스터로 제한했다.

2-1. <Section 1. 전염과 면역(Infection and Immunity)> 구경하기

전시장에 들어서면 보이는 모니터에는 32명의 작가 포스터에 사용된 일부 그래픽 소스를 활용해 관객과 인터랙션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업이 담겼다. 마일즈랩의 작품으로 설치된 매체 앞에 관람자가 다가서면 30여 종의 감염체가 무작위로 생성되어 살아 움직인다. 관람자가 머무는 시간만큼 감염체는 경고음을 내고 몸집을 키우며 흔적을 남긴다.

32개의 작품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지을 수 있었다.

- 1) 코로나 19로 인한 감정의 변화: 14개
- 2)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된 모습: 7개
- 3)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했거나 재조명된 이슈: 8개
- 4) 기타(전염, 면역 등의 키워드를 해석한 작업): 3개

다음은 카테고리 별 작품 예시이다.

1) 코로나 19로 인한 감정의 변화

박채희&고석만 작가의 <무력한 일상>은 코로나 19를 겪으며 삶 속에 남은 무력감의 흔적을 쫓는다. 작품 전반에 표현된 유기적인 액체와 그 속에 수동적으로 갇혀있는 오브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치환한다. [그림 2]

2)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된 모습

김미리내&김득환 작가의 <Media-in.us>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대부분의 오프라인 공간이 제한되고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된 일상과 가상의 공간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과 소통을 이야기한다. 변화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노트북, 핸드폰 등의 미디어를 통해 실존하지만 가상인 데이터 값의 형태로 주고받은 관계성을 표현했다. [그림 3]

3) 코로나 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했거나 재조명된 이슈

<2020년의 블랙 유머>는 스스로를 격리하는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 뉴스에서 보여지는 모순된 상황을 표현한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외치고, 매일의 확진자, 사망자를 수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미국의 국가 원수가 몇 달간 보여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 ‘코로나 19에 걸림’ → ‘마스크 착용’의 행위를 보며 마치 올해의 블랙 유머를 관람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집스런 그의 입을 반복적으로 배치해 ‘말 많은’ 상황을 표현했다. [그림 4]

4) 기타(전염, 면역 등의 키워드를 해석한 작업)

채병록 작가의 <중첩안면도 重疊顔面圖 / Folded Visages>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 면역이 상상력을 통해 기호적으로 재생성되는 것에 주목한다. 모듈을 통해 서로 다름이 부딪히며 부조화에서 조화를, 비정형의 정형화를 이루어 내는 구조가 우리의 삶을 대변한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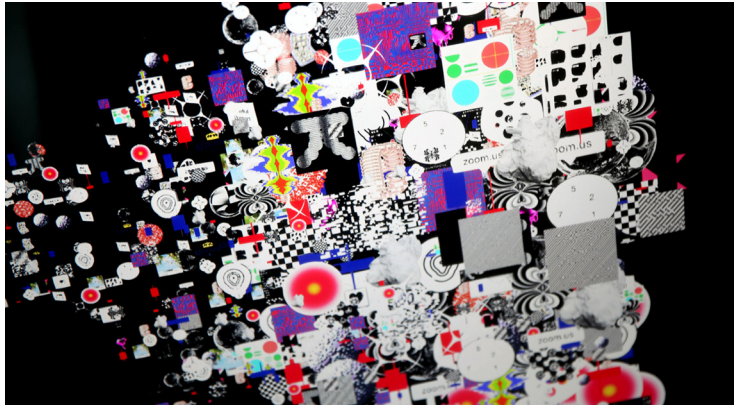
[그림 1]
마일즈랩, <Infection>, 2020

[그림 2]
박채희&고석만, <무력한 일상>, 2020

[그림 3]
김미리내&김득환, <Media-in.us>, 2020

[그림 4]
김한솔, <2020년의 블랙 유머>, 2020

[그림 5]
채병록, <중첩안면도 重疊顔面圖 /
Folded Visages>, 2020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2-2. <Section 2. 보호의 도구(Tools of Protection)> 구경하기

보호의 도구는 크게 두 가지 바이러스를 소재로 다룬다.

- 1)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했던 바이러스
- 2) 현재를 바탕으로 상상한 미래 시점에서 발생할 미래의 바이러스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1)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했던 바이러스

김재연,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네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회의와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속적인 화상 화면 속 얼굴의 노출을 온라인 회의에서 압박과 부담감의 주요한 원인이라 규정할 때 타인과의 화상 회의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려주는 방법을 구현한 인터랙티브 보호의 도구

2) 현재를 바탕으로 상상한 미래 시점에서 발생할 미래의 바이러스

조수연, <블루레이>: 2020년, 한 연구원의 불찰로 우연히 형광 물질을 머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가시성이란 특수 조건이 생겼고, 무거워진 입자는 비밀이 유일한 감염 경로가 되었으며 이 바이러스는 이제 '블루코로나'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는다. 이를 대비해 '블루레이'라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그림 6]



[그림 7]

보호의 도구를 제시한다. 페이스슈더로 비밀 감염을 막고, 형광 물질을 감시하는 자외선 헤드랜턴을 통해 근거리의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경고한다.

3. <전염과 면역> 전시 나오기

코로나 19가 잠잠해지던 11월,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을 기계에 인식하고 체온을 재야 전시장을 들어설 수 있었지만 3주간 열린 전시에 421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이미지는 이미지 생산자의 경험과 관찰로 대상을 주목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대상을 관찰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외형과 내적 속성을 반영한 다양한 이야기를 내포한다.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수용하는 관객 또한 수용자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미지 속에 담긴 이야기 조각을 맞추며 이미지를 해석한다. 벽에 적힌 기획의 글과 작가들의 작품 설명이 적힌 A3 사이즈의 비교적 큰 인덱스를 제외하면 전시에 관한 설명이 담긴 안내물이 없어 어쩌면 <전염과 면역>은 관객에게 불친절한 전시였다. 코로나 19는 삶의 모습을 바꾸었고, 관계 맺음의 형태도 변해간다.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때 전시 <전염과 면역>을 찾아준 관객에게 55명의 작가가 건넨 이야기가 현실의 위로와 공감이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VISUALREPORTSEOUL은 매해 그 해의 사회 문화 정치적 사건 중 하나의 이슈를 선정해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전시를 열 예정이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그림 8]

[그림 6]

김재연,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네요?>

[그림 7]

조수연, <블루레이>

[그림 8]

김한솔&전성재, <Infection and Immunity>, 2020

2020.
5.-11.26.

Section 1.
Infection and
Immunity
전염과 면역

Section 2.
Tools of
Protection
보호의 도구

Infection and Immunity

전염과 면역

Doosung
Paper
Gallery
두성페이퍼
갤러리

DOOSUNG
PAPER
GALLERY

9753
지정주차





